

미국 전문직업인증협회 ASPA

본원에서는 현재 전문직업인증과 관련된 해외 단체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회에는 미국 전문직업인증협회인 ASAP(Association of Specialized & Professional Accreditors)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ASAP에서 제안하는 '좋은 실습을 위한 규범(Member Code of Good Practice)'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ASPA (Association of Specialized & Professional Accreditors)
전문직업인증협회
<http://www.aspa-usa.org/>

MOTTO
전문직업인증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

역할과 기능
ASPA는 미국 내 전문직 및 직업관련 인증기관은 학생들이 각각의 영역과 규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들이 일관된 기준으로 교육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운영한다. 약 50여개의 회원기관을 가진 ASPA는 통합된 국가적 차원의 전문직업인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구이다. ASPA는 전문직업 인증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유일한 기구이며, 약 40개의 전문분야에서 ASPA 회원기관의 인증기관은 국가 교육 표준규격을 설정하나 직업을 정의했다. ASPA는 고등교육과 정부를 대상으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목적
ASPA는 교육, 연구 과학, 상호 개선, 및 직업적인 목적을 위해 클럽비나 특별 행정구의 밑에 독립적으로 편성된 자발적 비영리 단체이며 다음의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사립 중등교육이후 과정 및 기관에 대한 전문직업 인증기관의 질적 향상과 성실성 증대
2. 전문직업 인증과 관련된 이들을 위한 토론 및 분석의 장을 제공
3. 교육, 정부입장, 정책 등의 입장에서 인증과 관련된 문제들의 제기
4. 인증기구 간의 협력방안 제공
5. 인증책임을 통한 개인과 조직에게 평생교육을 위한 체계를 제공

ASPA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 컨퍼런스, 미팅, 네트워킹의 기회
● 직업적인 발전
● 좋은 실습에 대한 정보: Code of Ethics/Good Practice
● 전문직업 관련 고등교육 및 다른 커뮤니티에 대표자로 주정부 및 입법안 제안
● 특정 주제 및 영역에 대한 그룹모임 제공
● 인증에 대한 인식 및 신용 증대 함양

좋은 실습을 위한 규범(ASPA - Member Code of Good Practice)
ASPA는 Code of Good Practice를 제정하여 회원기구에 교육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1. 인증 임무와 목표, 목적을 추구하고 신용있는 방법으로 수행하라.
(Pursues its mission, goals, and objectives, and conducts its operations in a trustworthy manner)
2. 인증관계에서 서비스, 생산성, 효율성을 최대화하라.
(Maximizes service, productivity, and effectiveness in the accreditation relationship)
3. 기관 자치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Respects and protects institutional autonomy)
4.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게 가져라.
(Maintains a broad perspective as the basis for wise decision making)
5. 인증보고는 지식과 능력의 발전에 초점을 두어라.
(Focuses accreditation reviews on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competence)
6. 운영에서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공개하라.
(Exhibits integrity and professionalism in the conduct of its operation)
7. 방문팀 및 직원과 그들의 임무가 기준과 절차 안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경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라.
(Has mechanisms to ensure that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e application of its standards, procedures, and values are present in members of its visiting teams, commissions, and staff)

본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http://www.kimee.or.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소식 제3호

· 발행처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 발행인 : 이무상 · 편집 : 대외협력위원회 · 인쇄 : (재)한국의학원
*이 소식지는 (재)한국의학원의 지원에 의해 인쇄 되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발행처: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전화 02-795-1591 | 팩스 02-795-1592 | <http://www.kimee.or.kr>

의평원 소식

의과대학 인정평가단 2007년도 서면 및 현지방문 워크숍 개최 및 평가 완료

제2주기 1차(2007)년도 의과대학인정평가를 위해 3개의 서면·방문평가 평가단이 구성되어 5개 대학(고려, 서울, 성균관, 울산, 인하)을 대상으로 10월~11월에 걸쳐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에 앞서 10월 16일(화)에는 서면·현지방문평가 워크숍이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있었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년도 의과대학인정평가단 서면·현지방문평가 워크숍

일시 : 2007년 10월 16일(화) 09:30 주최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장소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2007년도 인정평가단 평가위원

평가영역	1평가단	2평가단	3평가단
단 장/대학원	맹광호(가톨릭)	정명현(연세)	최종상(고려)
대학운영체계	김영창(순천향)	이수곤(연세)	이상엽(관동)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I	이종태(인제)	이병두(연세)	임기영(아주)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II	손호상(대구가톨릭)	이수정(가톨릭)	허 선(한림)
학생	김용운(영남)	윤태영(경희)	윤희상(경상)
교수	서석호(이화)	김교순(건국)	이유철(경북)
시설·설비	김정수(전북)	이만기(경북)	박훈기(한양)
평가대상대학	서울	고려/성균관	울산/인하
현지방문평가 일정	11월19~20일	11월12~13일 11월19~20일	11월6~7일 11월13~14일

의평원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

의평원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007년 10월 29일(월) '인정평가와 국제화' 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진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의학교육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학교육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세계 의학교육연맹(WFME) Hans Karle 회장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기본의학교육평가단 프로그램 개발 및 설명회 개최

본원 기본의학교육평가단(단장:김형규 교수)에서는 기본의학교육평가를 위하여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셉틀이용검사(Internet Based CBT)의 개발을 한림의대 허선 교수에게 의뢰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발된 IBT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실제 웹상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사진, 동영상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해 12월6일(금) 고려대 안암병원 전산교육실에서 사업참여대학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프로그램의 설치와 사용에 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교육 인정평가 기구 간담회 개최

(가)한국보건의료인 양성교육 인정평가기구 협의회 (Korean Association / Council of Health Personnel Education Accrediators)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12월7일(금) 조선히otel 스시조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교육 인정평가 기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무상 한국의학교육평가위원장, 안규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위원장, 김미원 한국간호평가원 사무국장, 김관식 한국치의학교육평가위원장께서 참석하여 보건의료인교육 인정평가기구 간에 협의를 통하여 보건의료인이라는 전문직업인 양성교육의 특성과 인정평가의 중요성을 사회와 정부에 한목소리로 대변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가)한국보건의료인 양성교육 인정평가기구 협의회 설립을 추진을 결의하였습니다.

의평원 자문회의 개최

본원에서는 의학교육 및 의평원 원로위원님을 모시어 앞으로의 의평원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12월7일(금) 조선히otel 호경전에서 의평원 자문단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이순형 前 한국외국어대학교인정평가위원장, 김영명 前 한국의학교육협회회장, 이종욱 前 한국의학교육평가위원장을 모시어 의평원의 현 문제점들과 해결방안,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금 교부

본원은 고등교육평가의 질 제고와 관련하여 「인정평가를 통한 의학교육 국제화 및 질 관리 사업」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07년도 학문분야 평가'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으며, 지난 11월23일에 총사업비 4,000만원의 교부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이윤성 인정평가단장이며 사업내용으로 인정평가와 관련한 국제기준 및 국제기구와의 비교조사, 인정평가 전문가 양성 워크샵, 의과대학자체평가연구자 양성 프로그램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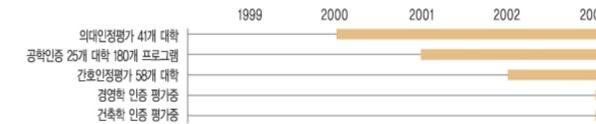
제2대 KOMSIS 운영위원장에 왕규창 한국외국어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선출

제6차 KOMSIS 운영위원회가 10월 30일 조선히otel 스시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1대 KOMSIS 운영위원회 이무상 위원장의 임기가 2007년 10월31일자로 종료되므로, 제2대 KOMSIS운영위원장에 왕규창 한국외국어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현재 KOMSIS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직은 학장협 위원, 의평원 위원, 의학원 위원이 1년씩 번갈아 맡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관련 소식

경영·건축·의학 분야도 도입 ... "특수성 고민해야" 학문 분야별 '국제인증'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학문분야별 인증제 추진흐름



대학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교육'이 강조되면서 대학들의 고민은 국제 인증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학분야에서 워싱턴어코드 가입을 통해 국제인증이 가시화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뒤따르는 추세다. 공학에 이어 경영학·건축학·의학·간호학 등에서 민간 인증기구가 설립돼 있다.

교육 품질 관리 위해 인증기구 설립

공학의 경우 1999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설립,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 대학 180개 프로그램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해외에서도 학위가 인정되고 취업 시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공학 인증을 신청하는 학이 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하 경영인증)은 지난 8월 첫 인증 사업에 돌입했다. 경영인증은 2004년 한국경영학회에서 경영학 교육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경영학 인증의 필요성과 함께 설립이 추진됐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일부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국제인증을 추진했다.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 세종대 등 4개 대학이 미국경영대학협회 인증(AACSB)을 획득했고, 이 가운데 고려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경영교육인증(AACSB)과 유럽교육인증(EQUIS)을 획득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올해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울산대 등

5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주기 의대인증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주기 의대인증평가(2000~2004년)에서는 41개 대학이 평가를 받았다. 한국간호학평가는 인정제도를 평가사업의 전 단계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만 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58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정평가를 실시했다.

국제인증, 시장개방 대응카드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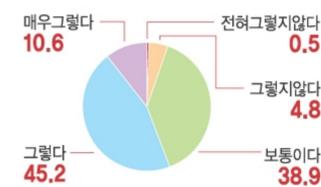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하 건인증)은 올해 처음으로 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홍익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했고 현재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 건축학 분야도 분주하다. 건인증과 미국, 중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영국 등 관련기관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건축가연맹(UIA)은 내년 5월에 가입 국가간 상호 인증을 위한 협약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김진균 건인증 원장(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은 "자격 인정이 안되면, 설계시장 개방시 외국건축가는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반면 우리 건축가는 외국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설계시장이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건축가협회·건축협회 등이 모여 국제 인증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무역학과 행정학도 인증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인증이 추세이긴 하지만 이를 모든 학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학 분야도 WHO(세계보건기구)와 국제의학교육인증기관(WFME)이 함께 만든 의대 교육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 라인이 설정돼 있지만 꼭 지켜야 되는 강제력은 없다. 나라마다 고유한 의학분야의 특수성이 존재해 획일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무상 의평원장(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은 "의학분야에서 국제인증을 허가한다는 의미는 외국 의사 면허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많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장 개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인증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강조하는 이 지적은 국제 인증을 추진하는 대학·기관들이 경청할 만한 지적이다.

○ 교수신문 2007/11/19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공학교육인증工大출신 실무능력·창의력 뛰어나

공학교육인증 졸업생에 대한 산업현장 의견조사 (단위:%)

자발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료: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학혁신연구소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은 '공학교육 인증제를 도입한 공대 출신 졸업생들이 비인증 대학 졸업생에 비해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학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공학교육 인증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셈이다. 공학교육 인증제는 산업 현장과 대학 교육 간 괴리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대학 커리큘럼 등을 점검해 이를 만족시키는 대학을 공공기관이 인증해 주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사장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 원장)이 공학교육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워싱턴협약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까지 25개 대학 180개 프로그램이 공학교육 인증을 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3일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공학교육 인증 졸업생에 대한 산업 현장 의견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138개), 중소기업(45개), 공기업(6개) 등의 인사담당자 2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비인증 공대 졸업생에 비해 공학교육 인증 졸업생이 더 우수하다는 질문에 응답자 중 165명(79.3%)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 결과 공학교육 인증 졸업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 96명(46.2%)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55.8%(116명)가 공학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들은 '자발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53.9%(112명)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항목에서도 공학교육 인증 대학 졸업생들이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인증제 도입으로 졸업생들의 전공 지식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5%(132명)가 "공학교육 인증제 대학 졸업생들의 전공 지식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공학교육 인증제를 이수한 졸업생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나 전공 지식 측면에서 뛰어나 조직 적응력이 높다"면서 "기업들이 인증제 가산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반응과 달리 일부 공과대학들은 인증제 도입 절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것. 오세영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대학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교수들이 강의와 연구를 포기하고 서류작업에만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고 싶어도 신청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경제신문 2007/12/03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